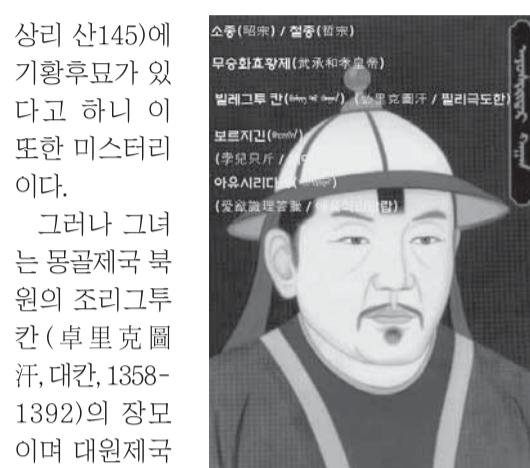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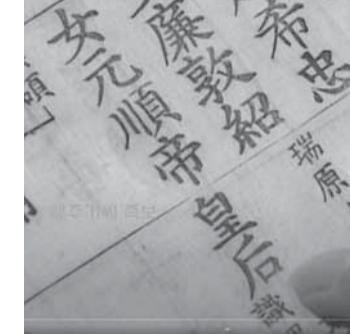


◆며느리권씨 일전 12-1

# 북원국(北元國) 소종(昭宗)의 황후 권씨(추밀공파15세, 권겸권謙의 딸)

## 격동하는 동북아



상리 산145)에 기황후묘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미스터리이다. 그러나 그녀는 몽골제국 북원의 조리그투칸(卓里克圖汗, 대칸, 1358-1392)의 장모이며 대원제국 혜종, 기황후의 며느리이고 당대구봉군의 명문 권보(權溥, 1262-1346)의 손녀이다.

아버지 권겸(權謙, ?-1356)은 권부의 막내이고 만형 권준(權準, 1281-1352)의 나이로 보면 1300년 생 쯤으로 보이고 권황후가 권겸의 막내이고 남편 원소종의 나이와 비춰 볼 때 대략 1340년 생 쯤으로 추정된다.

기황후가 제2황후(1황후 권신 빼이안의 딸)가 된 시점이고 그 후 아들 소종이 15세 쯤에 결혼할 때면 그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때이다. 그래서 이민족(고려)의 여인을 정식으로 자신의 며느리이자 황태자비로 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원종이 태자 시절 불모나 다름없는 협상자로 중원으로 가다가 몽골황제, 칭기스칸 아들이 죽어 아들들(쿠빌라이·아리크부케)과 삼촌(툴루이)간의 황위 다툼 와중에 쿠빌라이를 만나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당시 45, 40세의 원숙한 두사람은 의기 투합하고 쿠빌라이(元世祖, 元1대 황제)를 옹립하는 데 일조한다. 여기서 두사람은 사돈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고려가 원의 피지배자로 정략적으로 부마국이 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쿠빌라이의 서녀 제국대장공주를 원종의 아들 태자(총렬왕)의 왕후로 맞게 된 것이다. '대장(大長)공주'는 황제의 딸, '장(長)공주는' 왕의 딸, 공주는 권

주(主)는 황제의 딸, '장(長)공주는' 왕의 딸, 공주는 권

황후 아들, 1338-1378)의 황후인 권황후(權皇后, ?-1378?, 1410.5.22?)는 원나라 말기 혜종(원순제, 1320-1370)이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대도(北京)를 함락(1368) 당하고 몽골조원으로 도망가는 시점(기리코름, 北元)에서 명나라 군사에게 체포되어 그 행방이 묘연하면서 사실상 대단한 스토리가 없다.

그녀의 사망 시점도 1978년, 1410년 등 묘연하다.

그녀의 사망 시점도 1978년, 1410년 등 묘연